



성철 스님이 말한 ‘중도와 연기’

백법법문 (상, 하)
백련선사간행회, 장경각, 각각 7천원

성철 스님이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추대되면서 100일 동안 불교 전반에 관한 법문을 했는데 그 말씀을 정리한 책이다. 상, 하 두권으로, 상권은 근본 불교, 즉 아함경과 남전대장경에 나타난 원시불교의 각종 이론을 대승의 입장에서 풀이했다. 하권은 대승불교의 제반사상, 즉 중관과 유식은 물론 천태, 화엄에 이르는 다양한 사상의 요점을 설명하고 중도사상(中道思想)을 핵심으로 인도의 원시불교에서 중국 선종 및 우리나라 선종사상까지를 언급하고 있다. 성철 스님은 이 책에서 불교의 중심 사

상을 중도(中道)와 연기(緣起)로 요약한다. 중도란, 두 극단을 버림으로써 양면이 서로 통하게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일체의 있음과 없음 등의 견해가 전혀 없고 또한 없다는 견해도 없는 것이 불법을 바로 보는 견해이다. 이 중도란 발도 그 상태를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어 잠시 빌려쓰는 것일 뿐, 양면이 없는데 가운데가 있을 리 만무하다. 연기는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라고 명칭한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삶(生)이 있으므로 죽음(死)이 있고 죽음이 있으므로 삶이 있는 것처럼 모든 법(法),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각화사 선원장 고우스님이 늘 추천하는 책이다.



참된 나 찾기, 지름길로 가보자

참선요지
허운대사/대승스님 역, 여시아문, 5천5백원

여시아문이 펴낸 <참선요지>는 참선의 진수를 펼쳐 보인다. 하지만 진수만이 아니다. 참선의 목적과 참선을 하기 위한 선결요건, 화두 참선법 등 참선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주옥같은 설명들이 곁들여져 있다. 여시아문의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선(禪)편의 첫 번째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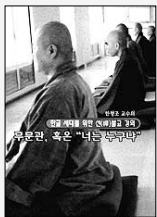
이 책은 중국 허운 스님의 참선에 관한 법문이 담긴 <허운 노화상 연보(화회)>대만 수원선원 계의 법문을 대승선이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 허운 스님이 선방에서 한 소참법문인 ‘선결법문’과 함께 연보의 내용 일부를 간추린 허운 스님의 약전(略傳)도 포함

시키며 놓아 허운 스님의 행장을 따라가며 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역사 대승 스님은 “선에 대한 조사 스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허운 스님의 가르침은 평이하면서도 명철한 논리를 지녀 초심자들도 이해하기 쉽다”고 말한다. 허운 스님은 참선의 선결조건으로 망상을 버릴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설한 ‘심이 곧 깨달음(歇即菩提)’이라고 하신 ‘심(心)만 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달마 조사가 ‘모든 인연을 한꺼번에 쉬어버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에서도 이같은 의미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심’은 ‘놓아 버린다’라는 의미다.

한글세대를 위한 화두 길잡이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형조 저, 여시아문, 6천원

“수행자들의 실지 수련을 위해 간명하게 정리한 화두(話頭)집인 <무문관(無門關)>을 통해 선의 역사와 이론, 방법과 한계를 읽는다. <무문관>은 선의 궁극적인 화두, 즉 ‘너는 누구냐’라는 실존적 질문에 대한 선의 전형적 접근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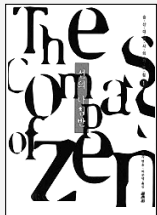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는 한형조 교수의 한글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집이다. 선을 평면의 언설로서 즉 논리와 변증을 통해 접근하여 한글세대 누구나도 읽어나가다 보면 선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만하다.

이 책은 학인들을 위해 독자적으로 제시했던 화두들을 끌어모아 엮은 무문관 원본의 편집체제를 존중하였고, 선의 정신에 입각해 해설 또한 단평과 감상을 주조로 했다. 한편 이러한 강의에 불편해할 사람들, 즉 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군데군데 장문의 해설을 끼워 넣었는데, 이를 참고하면 선의 대강을 가늠할 수 있도록 편집, 독자의 편의를 도왔다. <무문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책이 아니다. 학인들을 위해 독자적으로 제시했던 화두들을 끌어모아 엮은 것일 뿐이다. 그 편집의 체계를 존중하여 강의 또한 굳이 역사와 사상의 선후를 정리하지 않았고, 또 선의 정신에 입각해 해설 또한 단평과 감상을 주조로 했다.

美 곳곳에 뿌려진 송산선사 법어

선의 나침반 1,2
현각스님 역음, 허문명 역, 열림원, 7천5백원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자 국제선원이 있는 화계사 조실 송산 스님은 한국 불교계에서 해외 포교에 관한 한 독보적인 존재로 꼽힌다.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관행처럼 이어졌던 한국 이민자 중심 포교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백인 대상 포교활동에 힘써 언어 장벽은 물론 백인 우월주의를 극복하고 한국 선불교를 널리 보급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포교의 결과 한가운데 위치한 인물이 바로 현각 스님이다. 스승과 나눈 아름다운 인연을 <만행>이란 단행본을 극복하고 한국 선불교를 널리 보급했기 때문이다.

의 법어를 노트며 녹음 테이프, 비디오 등에 담았다. 현각 스님은 4년여에 걸쳐 이것을 정리해 1997년 미국에서 <선의 나침반(The Compass of Zen)>으로 출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린다. 무엇보다 이 책의 매력은 일상의 언어와 이 시대의 버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산스님이 전하는 내용은 명쾌하고 초심자를 위한 듯 비유가 풍부하다. 책 속에는 스님이 치는 ‘땀’하는 주장사 소리도 있고, 파안대소하는 웃음소리도 있다. 조주 스님은 “차나 한잔 마셔라”하고 말했지만 스님은 “코카콜라나 밀크셰이크를 먹어라”하고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린다. 스님은 결코 심오한 깊이를 과시하지 않는다. 눈이 화려진 우리를 눈뜸의 바다로 친절하게 안내할 뿐이다.

‘실천과 사상’으로 본 조사선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김태완 저, 장경각, 1만8천원

이 책은 혜능에서 시작하여 마조에서 완성되고 그 문하에서 풍미한 중국 조사선의 본질을 실천과 사상 두 측면으로 나눠 고찰한다. 실천적 측면은 직지인심과 견성성불이며, 사상적 측면은 심성관(心性觀)과 수증관(修證觀)이다.



이 가운데 견성성불 편에서는 조사선의 가장 큰 특징인 선문답을 통하여 견성을 추구하는 일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살피고, 견성 체험의 일화 가운데 마조의 경우를 대표적 모델로 선정하여 견성 체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조사선이 스승과 제자가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통

하여 이심전심을 실천하는 선법임을 강조한다. 또 수증관 편에서는 조사선의 어록과 <전등록>에 나타나는 선사들의 공부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선에서의 공부방법, 학선수도(學禪修道)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고찰한다. 이와 함께 혜능의 수증관이 중국 선종의 사상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혜능에서 입제에 이르는 조사들의 수증관 특색 등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 특히 저자가 역점을 기울이는 부분은 혜능과 그 문하가 이전의 점수선을 극복하고 새 로이 행한 돈오선의 본질은 어떤 것이며, 어떤 점에서 점수선을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곧 오늘날의 한국 선종에서 행하는 돈오선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과 맥락이 닿는다.

禪과 하이데거 존재론의 만남

선의 세계(1,2)
고형근 저, 운주사, 1만3천원

철학교수와 대학총장을 지낸 원로 철학자 고형근 박사의 책, 한국 불교의 법맥과 그 특징인 통불교적 성격과 선교일치의 전통을 밝히고 동양문화의 특색을 이룬 선불교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동서사상 사이에 가교를 놓을 수 있도록 제3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논저이다.



1991년 발행된 고형근 박사의 <선의 세계> 초판은 학술원 저작상을 받을 정도로 그 주제와 깊이 있어서 선(禪)철학의 일가(一家)를 이루었다. 저자가 그동안 생활해 오면서 얻은 선적 느낌들과 그 이후에 발표된 논문들에 철학적인 견해를 더하여 새로

이 증보판을 낸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선교일치의 특색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과 아울러 선의 세계에 서구철학을 접목시킴으로써 그것의 집점과 차이점을 자세히 밝혀 놓았다. 선불교에 대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사상적, 문화적 근간이 되는 불교, 특히 선교일치의 선불교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로 서구사상과의 접근과 차이점을 밝혀주는 연구서로 인정받고 있다. 저자는 총론에서 세 가지 견해, 즉 개념이 없는 통속적 단계와 선의 문턱에 들어선 단계, 선의 궁극적 경지에 도달한 얻은 선적 느낌들과 그 이후에 발표된 논문들에 철학적인 견해를 더하여 새로



“선지식들이, 나는 흥인 화상의 문하에서 한번 듣고 말끝에 크게 깨달아 진여본성을 단박에 보았다. 그러므로 이 교법을 후대에 유행시켜 도를 배우는 이로 하여금 보리를 단박 깨닫게 하여 각자가 스스로 마음을 보아 자기의 성품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육조단경) 오조홍인 스님이 새벽에 혜능 스님을 조사방 인으로 불러들여 <금강장>을 설해 주었는데, 혜능 스님이 한번 듣고 말끝에 바로 깨달았다는 견성체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접한 불자들은 한번쯤 고개를 가우뚱 했을 것이다. “한번 듣고 깨달았다고요?” “그럼 오랫동안 수행할 필요가 없겠네요?”

선사와 대강백의 법문을 듣기위해 불완전리 전국의 산사를 찾는 불자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법하다. 하지만 옛부터 선사들은 ‘법문 듣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공부법’이라고 말해 왔다. 조사선에서의 깨달음은 기본적으로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의 형태인데, 이 ‘직지인심’은 스승의 설법이 스승과 제자의 문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법문을 듣고 단박 깨치는 ‘언하면오(言下便悟)’는 혜능 스님의 돈오 체험에서 발단되어 조사선 전체의 일반적인 방식이 된 것이다. ‘언하면오’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큰스님들의 사자후를 듣는 즉시 발심하거나 깨닫는 기연(機緣)을 만들어보자.

한번 듣고 깨달아요?

남종선의 특징은 ‘말끝에 단박 깨치기’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는다’는 돈오견성은 <육조단경> 이래 조사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언하면오의 돈오견성은 좌선간심(坐禪看心)이라는 인도에서 전래된 혜능 이전의 선법을 극복하고 혜능 이후의 중국 선을 새로운 선으로 열어가게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전등록> 등 선종 어록을 살펴보면 깨달음의 기원은 6근(眼)을 통한 자각이 전부이고, 열불이나 지계, 관법 수행이 깨달음의 기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선종에서 견성의 기연은 대체로 말을 듣는 순간, 행위를 하거나 보는 순간, 자연물의 소리를 듣거나 움직임을 보는 순간에 깨닫는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 선지식의 말(법)문을 듣고 깨닫는 경우가 가장 많은 문류이다. 혜능 이후에 융성한 마조와 석두 문하의 중국 조사선 전통에서 깨달음의 거의 대부분이 설법과 문답을 통해 견성을 체험하는 ‘언하면오’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까닭은 언어가 사람사이의 의사 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처님 당시도 법문 듣고 깨치

실지로 부처님 재세시에도 법회에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사례가 적지 않다. 청보리화 김재경 지도법사는 <붓다의 대중견성운동>(도피안사에서 펴내)에 <법구경>인 <Dhammapada-Commentary>를 통해 총 299건의 ‘대중 견성사건’을 확인했다. 부처님 재세시 총 1만2천975명 이상의 대중이 견성(수다문도) 이상했음을 경전을 통해 확인한 김 법사는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르려는 초발심의 단계를 깨달음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같은 자제는 오늘날 깨달음을 특별하고 전문화된 사건으로 신비화하는 태도와는 매우 다르다”고 말한다.

선지법문은 깨달음의 씨앗

관바로 마음을 가리켜서 스스로의 본성을 보아 성불

케 하는 이심전심의 묘법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 스승은 제자가 본래 가지고 있지만 있고 있는 것을 되돌아보고 다시 확인해 보도록 자극하고 촉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와 관련 남양회암 스님은 마조 선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운을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요를 설함은 저 하늘이 비를 내려 적셔주는 것과도 같다. 그대는 기연이 맞았기 때문에 도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깨달음을 필요한 요소는 마음 땅인 ‘심지(心地)’와 씨앗을 뿌리는 제자의 ‘발심’, 물을 주는 스승의 ‘직지인심’ 및 이 두 요소가 적절히 맞아서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기연’ 등이라 할 수 있다.

설법과 문답은 공부의 필요조건

선을 배우겠다고 발심한 사람은 우선 선원에 들어가 생활하며 선사의 상당시중(上堂示衆)을 듣거나 선사를 찾아가 법을 묻거나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직지인심의 교육이 이뤄진다. 선 공부의 필요조건인 상당설법과 문답을 통한 공부가 진행되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발심 ▷선지식을 찾아가 법을 묻는 ‘참문(參問)’ 또는 ‘청문(請問)’ ▷선지식의 응답에 의문만 일으키는 경우 제방 선원에서 참하는 ‘참구(參究)’ ▷참구의 결과 해답을 얻어서 선지식에게 해답을 확인하는 ‘감번(擬辨)’ ▷깨달음이 옳다고 인정하는 ‘인가(認可)’ ▷불답은 본성을 놓치지 않고 잘 유지하며 과거의 습기를 떨어버리고 더욱 본성에 출몰해 가는 ‘보인(保任)’ 등으로 구분된다.

정통 조사선 공부법 회복해야

조계종은 최상승 수행법이라고 일컫는 조사선의 간화선법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에서는 스스로 하는 ‘자기점검’ 이외에 선지식의 상당설법이나 ‘지도점검’이 일부 선방을 제외하고는 형식화되거나 사라진 곳이 적지 않은 게 현실. 이에 따라 조사선의 한 방면으로 확립된 간화선 참구와 더불어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문득 깨닫는다는 ‘언하면오’를 가능하게 하는 상당법문과 선문답, 지도

문답으로 공부하는 도량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법문, 지도지침을 통해 간화선 수행의 대화법을 시도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선원과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안국선원, 현정선원, 보림선원, 제주 원명선원, 부산 무심선원 등은 법문을 듣다가 의문나는 점이나 정진 과정에서 부딪힌 경계를 문답을 통해 스스로 해결토록 지도한다.

20여년전부터 삼매체럼 선수련회를 열고 있는 제주 원명선원(064-755-3322)은 조사선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문답식 수행법을 지도한다. 좌선위주의 간화선을 강조하지 않고 ‘법문 듣기’와 문답을 통한 참구방법을 사용한다. 입장과 지혜의 유무에 관계없이 곧바로 자기 마음을 보고, 깨달음의 본래 그 자리를 이해하여 그 자리에서 생활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수행법이다.

서울(02-732-0772) 및 부산 안국선원은 선 법문을 통해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시킨 후, 선원장 수불 스님으로부터 활구 화두를 받아 1주일 율령정진한 후 개별적인 점검을 받는다.

현정선원(02-582-9371)과 무심선원(051-515-7226)은 ‘법문’이 가장 중요한 수행 방편이다. 특히 무심선원은 일대일 입심지도, 소참법문, 대중법문이란 공부형식을 통해 좌위적인 공부를 반대하는 ‘무위법(無爲法)’을 강조한다.

보림선원(02-914-6187)은 거사풍(居士風)의 설법과 좌선이 주요 공부법이다. 재가자들이 24시간 공부할 수 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상법신(無相法身)을 굴린다’는 등 새로운 화두라는 의미의 ‘새맛구’를 제시한다.

이밖에 스승과 제자간의 문답-점검 시스템이 잘 이뤄지고 있는 곳은 화계사 선우회, 천등사, 불심정사, 선도화구 대표적이다.

점검 등 조사선의 공부과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명선원 최주 대표 스님은 “조사선의 수행법은 좌선, 관법 등 특별한 능력의 습득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교육법인 설법과 문답법이라는데 보편성이 있다”고 말했다.

